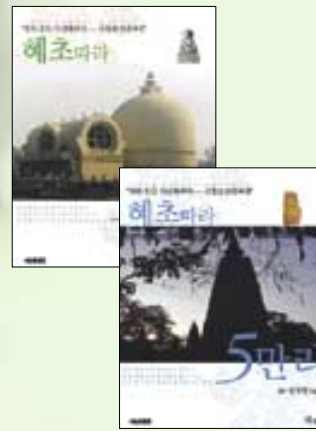




‘혜초따라 5만리’ 낸 화가 김규현 씨

1300여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혜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한 후 <왕오천축국전>을 새롭게 재해석한 김규현 티베트문화연구소장.



“혜초, 위대한 탐험가이자 세계인”

‘왕오천축국전’ 여정따라

10여년간 12개국 20여차례 순례

“혜초 열반지는 中 오대산 금각사”

기존 학설 뒤집는 주장 눈길

“혜초 스님은 처음 아랍 제국을 다녀온 동양인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입니다. 비행기도 자동차도, 아니 자전거조차 없던 서기 720년대의 먼 옛날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다시 중국에서 인도로 가서 그 전역을 도보 순례한 혜초 스님은 정말 위대한 탐험가이자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김규현(58·티베트문화연구소장)씨가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에 나와있는 여정을 그대로 다시 순례하며 재해석한 <혜초따라 5만리>를 펴냈다.

<왕오천축국전>은 신라 승려 혜초(704-787)의 인도 기행문으로, 1908년 둔황석굴에 두루마리 형태로 축약본 일부가 남아있던 것을 프랑스의 탐험가 펠리오가 발견했다. 원본은 현재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상태.

김 소장이 이번 책 출간을 위해 둘러본 곳만도 12개국에 넘는다. 무려 10여년간 20여회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책도 순례 여정에 맞게 로드뷰멘터리 형식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 책은 각주마다 ‘가이드 포인트’ 코너를 두어 지은

이가 순례한 여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순례 도전용 가이드북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 책 속에는 기존의 학설을 뒤엎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순례중에 혜초 스님의 열반지가 건원보리사(가 아닌 중국 오대산 금각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동안 혜초 스님이 <천발대교왕경>을 번역, 서문을 쓰고 여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오대산 건원보리사(乾元菩提寺)는 금각사(金剛寺)의 별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 책에서 “건원이란 당나라 8대 황제인 숙종의 연호”라면서 “건원보리사는 고유명사리가 보다는 건원황제의 명복을 비는 원찰이라는 상징적 보통명사”라고 덧붙였다. 또 “황제의 연관이 있는 사찰의 경우 중국에서는 이름대신 황제의 연호를 대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1300년이 지난 지금, 혜초 스님의 순례지를 따라가며 지은이가 재해석한 흔적은 책 곳곳에서 살아 숨신다. 인도의 라즈기트와 쿠시나गर 사이를 통과하려면 나란다대학을 거쳐야 하는데 혜초 스님은 이 대학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지은이는 혜초 스님이 나란다대학의 입학 시험에서 낙방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혜초 스님의 은사가 나란다대학 출신의 불교 삼장 스님인데 은사의 대학을 지나가면서 책 속에 이 대학을 한줄도 소개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에 나란다대학의 입학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만큼 힘들다고 돼 있어 분명 스승의 영향을 받은 혜초 스님이 입학 시험을 치렀으나 떨어

져 소개하지 않았다고 재미있는 해석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그동안 순례를 하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 아프카니스탄 바미안 석굴을 여행하다가 흉탄 세례를 받기도 했으며, 중국과 인도에서는 강도를 만나 소지품을 강탈당하기도 일췌했다. 또 아프카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국경에서는 비자문제 때문에 다시 3만리를 되돌아가 항공편으로 우즈베키스탄 순례를 다시 하기도 했다.

“순례를 마친 뒤 책을 쓰면서 우리 민족의 빼어난 문화적 슬기를 많이 느꼈어요. 19살의 나이로 이국으로 떠난 혜초 스님은 4년 간 서역을 여행하면서 서정성 짙은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왕오천축국전>은 민족의 숭분정신과 문화적 긍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여시아문 펴냄 | 상·하 각각 1만8천원
글=김주필 기자·사진=고영태 기자

김규현씨는 성균관대학교와 해인불교 전문강원을 나와 북경중앙미술대에서 수인목판화를 전공했으며, 라싸의 티베트대학에서 만다라와 탕카를 연구했다. 저서로는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티베트 역사산책> <티베트의 사계> 등이 있으며 올 가을에는 티베트의 이상향을 주제로 한 <삼팔라>를 출간할 계획이다. 또한 김규현씨는 <왕오천축국전>과 관련된 로드뷰멘터리와 음반 제작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김규현씨는 남양주 불선사에서 7월 23일 <혜초따라 5만리>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저우언라이 평전 리핑지음 | 허유영 옮김 한얼미디어 | 2만5천원

<저우언라이 평전>은 사후에도 ‘영원한 인민의 빛’으로서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저우언라이의 일대기를 충실하게 담아낸 역작이다. 지은이는 풍부한 문헌자료와 당대 저우언라이와 교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을 통해 저우언라이의 일생을 밀도있게 재구성했다.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애국자였다. 국공내전 시기 충칭에서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그에게 “중국인과 공산당원이라는 신분 가운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라고 질문하자, 저우언라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야 물론 중국인의 신분이지요.”라고 답한다. 이념이나 권력에 앞서 인민과 애국을 앞세운 그의 자세는 공산혁명 시기부터 1976년 사망 때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지속된다.

그의 혁명 이력은 청년 시절 5·4운동 참여, 광저우 코린 조직, 대장정 참가, 국민당과의 항일연합전선 구축 등으로 이어진다. 1949년 중국 정권 수립 경제의 근대화, 자주적인 외교, 지식인들과 문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 소수민족 문제 등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는 없었다.

영원한 중국 인민의 빛

문화대혁명 기간중 그는 홍위병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중국 이래 17년 간, 당과 정부의 업무는 과오보다 성과가 많았다. 실령 방향과 노선을 잘못 제시한 과오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혁명을 하지 않았거나 반혁명이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저우언라이는 당시 혁명 지도자들중 유일하게 실각하지 않고 살아남아 중국 현대화를 이끈다. 덩샤오핑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4대 현대화’ 노선은 이미 저우언라이에 의해 주창된 것들로, 저우언라이는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해 중국 현대화의 초석을 깔았으며, 마오쩌둥 이후를 준비했다. 결국 1976년 저우언라이와 마오쩌둥의 죽음 이후 중국은 실용과 개방으로 나아가며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중국의 경제성장 하면 덩샤오핑 이후 모든 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사실 저우언라이가 총리로 재직했던 1949년부터 1975년까지 덩 이후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식량 생산량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철강재와 전력 생산량은 각각 50배, 45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저우언라이를 향한 중국인들의 존경심은 이같은 외양보다는 그의 절대적 청렴·봉사·희생정신 때문이라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그는 평생 자신의 옷을 수선해 입었으며, 흡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인부들과 함께했다. 군용기를 타고 가다가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이 메고 있던 낙하산을 벗어 울고 있는 아이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임종시엔 자신을 화장해 고향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으므로 단 한 뼘의 땅도 자신을 위해 쓰이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청렴결백한 그의 정치철학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도 충분히 귀감이 되고 남을 것 같다. ■양일 (영문대 중국학과 강사)

소원 성취

신비한 영험 부엉이 길상도

귀암 함장

볼초 소승은 영흥도 토굴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승려로써 부처님 법과는 심안팔천리나 어긋나는 행위를 줄 일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바 소승이 도움이 되고자 부엉이(길상도)를 소개드립니다.

소승은 법화경을 토굴에서 10년 동안을 수행 주력한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승이 원력을 세운 달마도도 첫번째 방송에 소개된 바 많은 분들의 호응이 컸었고 지금 부엉이(길상도)를 처음 소개하려 합니다. 부엉이 길상도의 원력은 늘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며 집을 갖고자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자식 걱정 하시는 분, 시름을 앞둔 취업과 학업성취 등의 이 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상도이므로 벽에 걸어 놓으면 3년안에 원하시는 일들이 나날이 변형하여 성공 하실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주소, 나이, 생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FAX로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달마도도 환점 무료 보시합니다.

TEL : 032)886-3586 H·P: 011-9458-6616 FAX : 032)886-3587

계좌번호 : 우체국 201103-02-149423 예금주 김금수

서래달마원 원장 석구암 합장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옹장,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악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마닥에 용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썸비원에서 원적의선 92.1%가 방송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 만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항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벤치탁자

◆ 평상 1500 * 820 * 400 (mm) 가격: 150,000 할인가: 130,000
1800 * 1830 * 480 (mm) 가격: 229,000 할인가: 199,000

◆ 벤치탁자 set 1500 * 1790 * 750 (mm) 가격: 420,000 할인가: 370,000

골라치거나 턱창이 전혀 없고 두꺼운 도색이나 판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깔아 놓으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목상, 기온, 휴양용, 야외용, 정원, 공원 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제품.)

지구산업 TEL: (063) 323-3010-1 FAX: (063) 323-3012
www.jigu.com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박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지역대리점 도망

바로보인의 책들 대한문재현 선사님역사 / 저자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혀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천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장대무변의 역사와 전리를 권장대선사의 인가계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제강점기를 뚫고 세상을 떠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았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한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승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질문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탄생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남남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